

KTV

2014년 2월 10일

방송심의



기획편성부

프로그램	KTV 특별기획 - 가족, 행복의 재발견		
방송일자	2014. 1. 30. 13:05	시청률	0.109

【총 평】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다양한 가족들을 살펴보며, 행복의 가치와 행복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음. 특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설날'이라는 시의성에 잘 어울리는 주제선정이 돋보였음. <4대가 함께 하는 대가족>, <다문화 가족>, <한 지붕 다세대 공동체>라는 각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다루어 새로운 형태의 가족문화를 보여준 기획이 참신했음.

【구성 및 내용】

핵가족이 대세인 한국사회에 새로운 가족형태로 다가오고 있는 각기 다른 3가지 형태의 '가족'을 대비시킨 기획의 참신함 및 그림을 통한 가족의 행복도 조사, 1박 2일 실험관찰 카메라 등 다양한 구성이 돋보였고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가족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었음.

<3개의 새로운 가족형태>와 <1박 2일 관찰카메라>의 대상이 다름으로 인해, 두 개의 실험 간의 연계점이나 당위성이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음.

4대가 한 울타리에서 거주하는 이명순 원장의 경우, 집안에서의 식사시간, 가족의 쇼핑 나들이, 매주 수요일의 가족회의 등 다양한 시각으로 '대가족'의 생활행태를 보여주었음. 다문화 가정인 뚜띠네의 경우는 결혼이주여성인 뚜띠씨 가족의 사랑과 소통을 체감적으로 잘 묘사해 내었음. 새로운 주거형태인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의 경우 공동체에서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소통모습을 긍정적으로 잘 담아내었음. 그림으로 알아보는 가족행복도 조사의 경우, 그림 1장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한 심리를 파악한다는 설정자체가 작위적인 느낌을 줄 소지가 있었음.

【영상】

프로그램 도입부가 얼핏 공공 캠페인을 연상시키는 화면으로 시작됨으로써, 시청자들이 혼동을 할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음. 가급적 프로그램 타이틀은 시작할 때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음.

【참고사항】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관한 전향적인 시각이 돋보였으나, 행복한 가족문화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얼핏 작위적인 느낌을 주는 강요된 행복과 미소가 공감보다는 거부감을 줄 소지도 있었음.

프로그램	100살의 행복, 100살의 희망		
방송일자	2014. 1. 31. 19:55	시청률	0.055

【총 평】

수명 100세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100살이라는 초장수를 누려온 사람들의 행복한 삶과 아울러 앞으로의 희망까지 아우른 신선한 기획이 돋보였음. 특히 '배뱅이 굿'으로 유명한 인간문화재 이은관 명창의, 자신의 일에 충실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린 비결을 다룬 인물선정이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주었음.

【구성 및 내용】

올해로 98세를 맞은 이은관 명창의 소리인생을 통해 한결같이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보급에 앞장선 100세의 삶을 부각시킨 기획의 신선함이 눈에 띄었음. 특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을 알리고 후학양성에 몰두하는 전향적인 모습에서, 진정한 100세 인생의 행복과 희망을 보여준 점을 높이 사고 싶음. "무릎장단으로는 더 이상 전수가 힘들다"는 제자의 인터뷰 등, 우리 소리를 서양악보로 채보하는 이유도 이은관 명창의 국악사랑과 보급의지를 체감적으로 잘 보여주었음.

【참고사항】

100세 인생을 살고 있는 이은관 명창이나 하반기 화가 등 유명인만 다루기에는 인물선정의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100세를 지난 혹은 눈앞에 둔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접근할 지를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프로그램	희망의 새시대		
방송일자	2014. 2. 4. 11:00	시청률	0.006

【총 평】

전체적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이 시각 주요뉴스에 이어 2017년 국내관광소비액 30조 달성,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 정보, 등이 방송되었음. 집중 인터뷰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의 경우 국민들의 질문이 있었다면 더 생생한 느낌을 살렸을 것 같음.

【구성 및 내용】

국제뉴스 '동해병기 가시화'의 경우 단순보도에 그칠게 아니라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살짝 짚어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됨.

프로그램	카메듀서의 映像美學		
방송일자	2014. 2. 4. 17:55	시청률	0.046

【총 평】

<기차는 겨울로 떠나네>편은 한겨울 낭만을 찾아 떠나는 눈꽃열차와 함께 떠나는 겨울여행이 소개되었음.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간이역, 산, 썰매타기 등의 겨울풍경과 기차여행객들의 표정을 잘 잡아내었음. 감각적으로 잘 살아있는 영상과 현장감 있는 편집이 집중력 있는 시간이었음.

【구성 및 내용】

내레이션이 없이 영상과 자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지만 깔끔한 영상이 눈길을 끌었고 서정적인 자막 내용도 감성을 자극해 몰입할 수 있었음. '모든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행복이다'라는 표현으로 강한 여운을 남겨 주었음.

【참고사항】

2월 4일이 입춘이라는 점에서 다소 때늦은 주제로 생각됨. 오히려 겨울 속의 봄을 이야기하거나 설 연휴 끝이므로 설날의 정취를 잡아냈어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됨.

프로그램	패러디팟! 라디오정책쇼		
방송일자	2014. 2. 4. 18:15	시청률	0.013

【총 평】

팟 캐스트를 벤치마킹하여 어렵게만 느껴지는 정부 정책을 가벼운 터치로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다루어 정보 전달과 흥미면에서 제작진의 노고를 느낄 수 있음. 그러나 다소 산만하다는 의견은 검토해 보아야 함 '7번방의 선물'과 '개그콘서트'를 패러디해 잃어버린 조선땅 찾기 사업을 확실히 각인시켰으며, 작곡을 통해 국가정책을 홍보한 점이 신선했음.

【구성 및 내용】

조상땅 찾기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유익하였음. 또한, 조상땅 조회 허용 대상 범위,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땅 찾기 등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조상땅 찾는 방법을 세밀하게 안내해주어 정보 제공면에서 매우 유익하였음.

한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콩트를 비롯, 노래창작 등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여 집중도와 흥미도를 배가시키고, 관련 정책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정보력도 뛰어났음. 그러나 기성 개그 프로그램을 패러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진행자들이 다소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움이 있음.

【참고사항】

어렵게 느껴지던 '정책'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장치의 다양함을 위해 노력하는 제작진의 고생이 느껴지지만 지나치게 산만하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		
방송일자	2014. 2. 5. 14:30	시청률	0.067

【총 평】

태극마크 달고 올림픽 출전 꿈꾼다>, <미혼모 '한 아이의 엄마'로 홀로 서다>, <청춘! 제2의 스티브잡스를 꿈꾸다 - '창업비자 1호' 제이슨 리> 등 3개의 아이টে으로 구성했음.

【구성 및 내용】

<청춘! 제2의 스티브잡스를 꿈꾸다 - '창업비자 1호' 제이슨 리>의 경우 창업 비자의 도입 배경이나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음.

또한, **창업비자 1호'라는 점에서 취재대상을 정했겠지만 시청자가 재미교포를 외국인으로 보고(물론 제이슨 리 국적은 미국) 지원해주는 사업에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 들었음.**

프로그램	통일 콘서트 공감		
방송일자	2014. 2. 6. 18:15	시청률	0.084

【총 평】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스포츠에 빠지다'라는 소재로 방송됐는데, 소재도 시의적절 했고, 제목도 일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이 그러하듯 정형화, 경직화 되지 않고 세련된 카피처럼 제시되어 신선하고 흥미로웠음. 한 회에 한 가지 소재에 집중해 논의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타 방송과 비교해 차별화 되었음. 특히, **지난 회에서 자막 효과음의 과잉, 화면분할 사용의 과잉을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모니터 의견이 수용, 조정되어 더욱 안정화되었다는 생각이 듭.**

【구성 및 내용】

북한 농구선수 탈북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그리고 들어보지 못했던 스포츠 관련 북한 현실을 들을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고, 왜 김정은 체제에서 스포츠가 강조되는지?, 자본주의 스포츠 확산의 의미 등 날카로운 분석과 전망을 함께 논의하여 프로그램의 역할을 제대로 했음.

【참고사항】

이다현씨 같은 경우 몇 차례 북한을 '우리나라'라고 지칭하고, '여기 대한민국'은 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있었음. 녹화방송이면 이런 부분은 출연자와 협의를 통해 다시 녹화하는게 좋을 것 같음.

프로그램		현장다큐 문화 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2. 6. 19:05	시청률	0.005

【총 평】

<국립국악원 최초의 여성수장 김해숙 원장>, <문화로 행복 충전 '문화가 있는 날'>, <2014 대한민국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발돋움> 등으로 구성됨. 문화와 관련된 인물과 정책, 제도들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워 보기 편한 흐름이었음. 특히, 김해숙 원장의 인터뷰의 경우 속도감 있는 편집과 감각적인 화면 구성 등이 눈길을 끌었음. 국민들의 문화생활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제도와 정책설명이 유익하게 다가왔음.

【구성 및 내용】

<문화로 행복 충전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에 첫 시행된 정책 현장을 취재한 것으로서, 좋은 전시회를 야간에 할인된 요금으로 관람하게 되었다는 문화정책을 담아냈음.

<2014 대한민국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발돋움>은 2013년에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한 부분을 해소한 정책현장을 소개한다는 구성이 효과적이었음. 국내관광수요 정체 문제는 약간 다른 영역의 문제이므로 별도로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사항】

'현장다큐 문화 행복시대'는 매주 15시 30분에 정규 편성되는 프로그램이므로 <2014년 부처 업무보고>로 인해 방송시간이 변경되었음을 자막 등으로 사전에 안내방송을 했어야 했음.

프로그램	귀농 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14. 2. 6. 20:00	시청률	0.142

【총 평】

늦깎이 귀농인 및 장어양식 등 인물과 소재선정의 다각화가 눈에 띄었음. 특히, 주인공인 '최우창'과 부인 '이향자'가 서로 함께 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담은 영상구성이, '귀농'의 장점과 지향점을 잘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음.

【구성 및 내용】

초반부의 인터뷰와 엔딩 직전의 인터뷰 등은 두 부부의 의상이나 배경이 동일해 시간의 경과가 어색한 느낌을 주었던 것 같음. 초반부의 인터뷰 후 시간의 흐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의상과 장소에서 인터뷰가 이어진 점은 구성상의 자연스러움이 부족해 보였음.

시작부분 인터뷰



끝 부분 내레이션 : 그날 밤 오랜만에 ~



【참고사항】

최근 들어 새터민 귀농인, 청년 귀어인 등 인물 및 소재선정의 확장이 돋보이나, 자칫 귀농다큐 '살어리랏다'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 <소박한 귀농의 꿈> 보다는 <귀농의 사업화와 성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함. 많은 시청자들이 귀농다큐 '살어리랏다'에 바라는 것은, <귀농~사업화 성공~부의 창조> 보다는 <귀농~도시에서 시달린 심신안정~노후의 소박하면서도 여유로운 삶>이 아닐까 싶음.

프로그램	여기는 국정기록실		
방송일자	2014. 2. 7. 18:05	시청률	0.031

【총 평】

대통령 업무보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등의 아이템과 현장 브리핑 내용을 통해 이해력을 높여주었지만 특별한 구성의 묘를 발견할 수는 없었음.

【구성 및 내용】

<경제 재도약 위해 규제 확 풀어야>에서 “(진도개는) 한번 물으면 살점이 뜯어나갈 때까지(놓지 않는다더라)”는 대통령 발언은 잔인한 장면이 상상되는데, 이런 발언은 가급적 편집하는 것이 좋을 듯함. <국내 관광 활성화,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돼야>편에서 ‘관광두레’라는 용어가 언급되었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는 자막이 없어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음.

프로그램	100살의 행복, 100살의 희망		
방송일자	2014. 2. 7. 19:55	시청률	0.031

【총 평】

100살의 행복, 100살의 희망이라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정체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감동과 의미를 두루 갖춘 뛰어난 아이템 선정이 매우 돋보였음.

【구성 및 내용】

손수 아침식사 준비, 아침산책, 서예 연습하는 모습 등 77년을 함께 산 '100세 노부부의 행복한 여행'을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감동적으로 잘 그렸음. 특히, 대법원장에게 '세한도'를 보낸 택배 우편물을 보여준 물론,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의 인터뷰까지 담아낸 능동적인 연출이 눈에 띄었음.

프로그램	국민 리포트		
방송일자	2014. 2. 8. 07:30	시청률	0.047

【총 평】

영도대교 47년만에 복원..."보러 오이소", 인도 어린이들과의 나눔여행 및 대구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북적 등, 신선하면서도 시의성 있는 아이템들이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였음. 특히, 대구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북적의 경우, 정부의 매주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의 날'이 시행된 이후의 트렌드를 신속하게 반영한 점이 돋보였음.

【참고사항】

국민리포트는 <시니어 리포트>, <캠퍼스 리포트> 및 <주부 리포트> 등으로 통합되어 방송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각 리포트만의 특성이나 개성이 다소 모호해진 느낌을 주고 있음. [지금 대학가에선]이나 [문화민국]보다는 <시니어 리포트> <캠퍼스 리포트> <주부 리포트>의 특징점을 살려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음.